

‘재정 열악’ 광주 자치구 기초연금 비상

25일 첫 지급 앞두고 5곳 예산 확보율 16% 그쳐

광산구 총 사업비 28억원 중 고작 1000만원 준비

기초연금 첫 지급일(25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비상 상태다. 당장, 5개 구청이 10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에게 올 하반기에 지급할 돈만 130억원에 달하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확보한 예산은 고작 16%에 불과하는 등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비중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36억8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5개 자치구의 확보 예산은 21억2000만원(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상당수 대상자들은 기초 연금을 제날짜에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광산구의 경우 28억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한 예산은 고작 1000만원이 전부다. 다른 구청도 비슷해 광주 북구는 필요한 예산(42억8000만원) 중 37억5000만원이 부족한 5억3000만원(12%)만 확보했고 25억원이 필요한 서구는 21억8000만원이 부족한 3억2000만원(12%)만 보유하고 있다.

광주 동구는 15억1000만원 중 7억9000만원(52%)을, 남구는 25억2000만원 중 4억7000만원(18%)만 지급이 가능한 형편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액이 1인당 2만원에서 9만6800원인 반면 기초연금은 2만~20만원에 달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액이 훨씬 많은데다, 동구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예산 부담률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등으로 부담률이 높은 점도 돈가뭄에 시달리는 이유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도는 평균 부담률이 ▲국비 84% ▲도비 13% ▲시·군비 3% 선으로 시·군비 부담률 일 낮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청은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 예산 편성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형

편을 고려하면 매년 되풀이될 수 밖에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사업비 부담률이 높아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급 대상자 모두에게 빠짐없이 기초연금은 지급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에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정부에 국비 부담률을 80~9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올 7월 광주 지역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10만2854명으로 ▲동구 1만1384명 ▲서구 1만9970명 ▲남구 1만8800명 ▲북구 3만1800명 ▲광산구 2만900명 등이다. 전남에서는 31만여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파악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응원도 만점 호남대 DRP 응원단이 19일 오후 열린 '제3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에서 댄스·밴드·풍물 경연이 모두 끝난 뒤, 관중 사이를 드나들며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업 스트레스 확 날려버린 광주 금남로 ‘청소년축제’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 5천여명 재능·기 발산 젊음 만끽

광주·전남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하며 잠시나마 학업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린 축제가 광주 금남로에서 펼쳐졌다.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 주최 '제3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에는 광주·전남지역 청소년과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해 젊음을 만끽했다.

이날 축제에는 댄스 21개팀, 밴드 10개팀, 풍물 4개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주제로 한 UCC 공모전에는 6개팀이, 수기 발표 및 토의에는 8명이 경합했다. 길거리 농구는 25개팀이 경기를 펼치는 등 축제 참가자만 74개팀 750명에 달했다. 또 조선대 밴드 동아리 '나라안'과 호남대 응원단 'DRP' 등 대학

유명 동아리들이 축하 공연을 펼쳐 흥을 돋웠다. 특히, 이번 축제는 중국 청소년 180여명이 참가해 국제 문화예술 교류제로 확대했다. 이들은 광주관광컨벤션부로의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 노래·댄스·무술·마술 공연과 드럼 연주 등을 선사했다. 특설무대 주변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홍보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또 네일아트 체험관,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이날 경연 결과, 부문별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은 학교폭력 근절 UCC 공모전에서는 조대부고 이민규·박기훈군이, 수기 발표 및 토의는 동아여고 김주선 양이 수상했다. 댄스 부문에서는 동신고가 차지했다.

시·도교육감상이 주어질 최우수상에는 풍물 경연은 문성고, 밴드는 완도수상고, 댄스는 대성여고·동아여고·송광중, UCC 공모전은 광주여상, 수기 발표 및 토의는 송원고가 각각 수상했다. 길거리농구는 광주·석산고·송일고 연합팀인 '현일외 아이들'과 서강중의 '슬래셔'팀이 중·고 부문에서 각각 우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3 해질 19:44
 물결 00:57 물집 14:55

빨래 잘 말리요
 당분간 낮 기온이 30℃ 이상 오르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 유의해야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3/32 보성 구름많음 21/30
 목포 구름많음 22/29 순천 구름많음 23/32
 여수 맑음 23/29 영광 구름많음 22/31
 나주 구름많음 22/32 진도 구름많음 22/30
 완도 구름많음 22/31 전주 구름많음 23/32
 구례 구름많음 22/32 군산 구름많음 23/29
 강진 구름많음 22/31 남원 구름많음 22/32
 해남 구름많음 22/31 흑산도 구름많음 21/27
 장성 구름많음 22/31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남	0.5	남~남서	0.5
남해	남동~남	0.5	남~남서	0.5
서부	남동~동	0.5	남동~남	0.5
남부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08	02:12
22:10	14:43	
여수	10:35	04:13
	23:39	17:27

◇생활지수

식중독	53
운동	40
빨래	90

◇주간 날씨

날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날씨	☀	☀	☁	☁	☁	☀	☀
기온	23/32	22/31	24/29	25/30	25/29	25/30	25/32

같은반 여학생 4명 상습 성추행

못된 초등생에 처벌은 “학급 바뀌라”

학부모들 강력 반발

교육청 진상조사 요구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4명을 3개월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A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B군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여간 같은 반 여학생 4명을 수차례 성추행했다.

B군은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양 등 여학생 4명의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음란 용어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학생 C양은 참다못해 지난 6월27일 담임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담임은 B군의 행동을 장난으로 여겨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해결하려 했으나, 익명의 학부모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게 됐다.

학폭위는 B군에 대해 학급 교체와 5일간의 특별교육, 서면 사과 등의 처벌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급 교체에 그친 것은 너무 경미하다”며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광주시의회의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조만간 현장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5월 학교폭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학교 측의 미온적인 조치는 없었는지,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 배려는 아파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SIEMENS
 BNC빌딩 수형
 지멘스 상무점 (약정할인율 50%)
 동행(문선지점)
 상무역
 아바들길자랑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약기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트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